

의좋은형제이야기교과서수록건의안채택의견

의안 번호	제60호
----------	------

발의년월일 : 2003. 4. 10.

발 의 자 : 김동숙 의원외 12인

1.. 주 문

- 그동안 우리의 교육도 시대적 성장과 발전속에 변화를 거듭해 왔음.
- 실제로 그동안의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교육과정도 지식의 가치 창출의 근원이 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논리력, 그리고 사고력과 응용력이 절실히 요구됨.
-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토대로 사랑과 정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산업화·도시화로 점차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되어 가는 현시대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2. 제안이유

-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우리군의 실존 인물이자 형제간의 우애의 표본으로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길이 길이 기억되었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누락된 데 대하여 우리 10만여 예산군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음.
- 이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실존인물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와 재미와 감동을 주고, 현장체험 학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다시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함.

가족의 정과 형제간 우애의 모범이 되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 교과서 수록 건의안

존경하옵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세계인의 가슴속에 1등 한국인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군은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충과 효, 그리고 예의 고장으로 지난 '97년부터 효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효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고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 윤봉길 의사 등 충과 효로 대표될 수 있는 선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실존 인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면면히 내려와 10만 군민의 가슴속에 간직되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데 기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누락되어 우리 10만 군민은 물론 의좋은 형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상실감이 더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 내용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만 인간성 상실 등 삭막해져 가는 현 시대의 상황에서 실존 인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서로 공감하고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수록되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10만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예산군의회에서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교과서 개편과 교육과정 개편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 하옵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충청도
대흥현의 실존 인물이었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교과서에 다시금 기술되어 자라
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4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중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